

실크로드의 음악 2*

타지키스탄**

마크 슬로빈(Mark Slobin), 알렉산더 주마예프(Alexander Djumaev)

라리사 도도우도예프(Larisa Dodhoudoyeva) 공저

이용식 옮김***

〈차 례〉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통음악 2. 서양음악의 영향 |
|--|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국가이다. 타지키스탄은 아리아·이란 유산을 전승하는 점에서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는 구별된다. 현재 중앙아시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투르크인이 들어오기 전인 거의 2,000년 전에 이 지역은 페르시아인, 소그드인, 셀레우시드 그리스인, 쿠산인, 파르티아인 등이 뒤섞여 살던 위대한 문화 복합체였다. 최소한 두 종류의 실크로드가 이 지역을 관통하면서 종교, 문물, 사상, 음악을 전해 [현재의] 타지키스탄이 형성되었다. 또한 훈족, 아랍인, 몽골인, 그리고 우즈베크인의 유입은 매우 풍부한 문화복합체를 형성했다.

* 이 글은 마크 슬로빈 (Mark Slobin), 알렉산더 주마예프 (Alexander Djumaev), 라리사 도도우도예프 (Larisa Dodhoudoyeva)가 쓴 "Tajikistan"을 번역한 것이다. Stanley Sadie ed.,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2nd ed., vol.25,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Limited, 2001, pp.14-19.

** 공식명칭은 Tajik Jumkhuriy Tojikiston.

***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지도 1) 타지키스탄

1920년대에 소비에트 위성국가로서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광활한 트란스옥시아나(Transoxiana)¹⁾ 지역에 탄생했다. 결과적으로 타직 음악가는 전통적으로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두 공화국을 넘나들며 존재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부하라, 사마르칸트, 샤희리샤브즈 등지에서 결혼식의 유희를 담당했던 여성 소잔다(sozandak)와 남성 마브리기(mavrigi)가 도시 맥락에 어울리는 특별한 양식을 발전시켰다.

우즈베크 타직 음악의 혼합은 1500년 무렵에 시작된 우즈베크의 침략과 더불어 시작된 오래되고 복잡한 과정의 결과였다. 우즈베크인이 받아들인 타직 문화는 두 시기에 형성되었는데, 하나는 초기 투르크인의 침략 (대략 기원후 500년 무렵부터) 이전

1) 트란스옥시아나(Transoxiana)란 현재의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을 포함하는 광활한 지역을 일컫는 명칭이다. 파미르 고원 아래에는 아무 다라(Amu Darya) 강과 시르 다라(Syr Darya) 강이 흐르는데, 전자 둘 고어로는 옥세스(Oxus)라 했고 후자를 작사르테스(Jaxartes)라고 했다. 트란스옥시아나(Transoxiana)는 '옥세스(Oxus-Oxiana)강을 넘어서(trans)'란 의미를 갖는다(이하 각주는 모두 옮김이 주).

에 발전한 페르시아 (이후에는 타지) 기층문화이다. 또 하나는 1,000년 동안 (기원후 500-1500년) 형성된 우즈베크 이전의 투르크-페르시아와의 접촉에 의해 생성된 문화였다. 타지 음악문화는 이런 문화적 맥락에서 형성되었고, 이후에 우즈베크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아마도 이런 음악적 혼용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트란스샤니아의 고전적인 스타일인데, 이는 부하라 왕국의 궁중음악인 샤시마콤(shashmaqom, '여섯 마قام')으로 정점을 이룬다.

1. 전통음악

1) 민족, 악기, 레퍼토리, 연주관행

타지의 악기, 레퍼토리, 연주관행은 크게 산악문화와 평원·협곡문화의 틀로 구분할 수 있다. 평원·협곡문화는 이웃의 우즈베크 음악문화와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산악문화는 매우 독특하고 때로는 오래된 문화의 특징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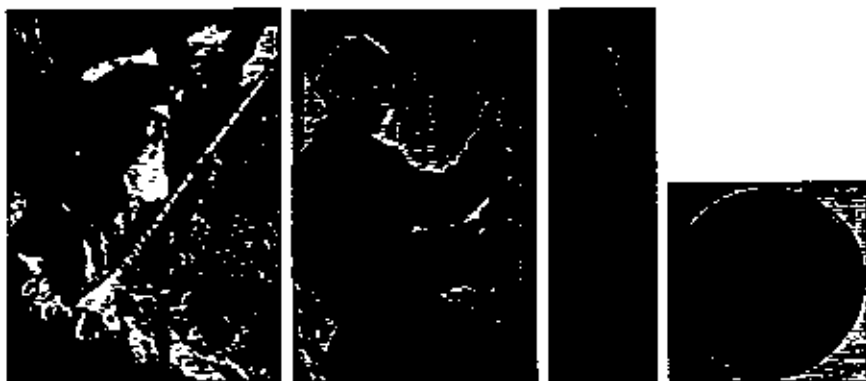
산악에 거주하는 타지인은 타지(동부 페르시아) 방언을 쓰는 카라테신, 다르바즈, 그리고 기샤르 지역의 거주민과 고대 페르시아어를 쓰는 피안즈 강(타지와 아프간의 경계) 근처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인 파미르인으로 구성된다. 파미르 음악의 독특함은 로밥(robab)이라는 두드와 노래의 특징적인 유형으로 나타난다. 파미르 로밥은 얇은 줄간개, 넓은 지판, 두꺼운 가죽으로 된 공명판, 박그릇 모양의 몸통, 그리고 넓은 테두리로 구성된다. 로밥은 형태학적으로 네팔의 남안(damyam)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는 파미르 고원과 히말라야 산맥을 관통하는 산악문화의 한 유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로밥은 두꺼운 나무 채로 날카롭고 힘있게 치면서 노래를 낮은 음역에서 굵고 큰 음색으로 반주한다. 여성이 교향창으로 부르는 노동요도 파미르 음악 장르이다. 파미르인은 이웃의 산악 타지인(이들은 아프간 바다크산 접경지역에도 거주한다)과 많은 음악적 특징을 공유하는데, 이는 탈춤, 동물흉내춤, 짧은 민속 유희(일반적으로 익살스럽거나 풍자적인 내용), 그리고 직업(직조나 사냥)을 묘사하는 음악 등을 포함한다. 산악 타지인의 중요한 악기 세 가지는 음향조건바개가 달린 관

악기인 둘락(nulak), 2줄의 프렛이 없는 루트인 뚝브락(dumbrak, 담부라(dambura) 또는 두타르-이 마이다(duitar-i maida)라고도 함), 그리고 깡통으로 만든 공명통을 갖는 찰현악기인 기작(ghidjak)이다. (뚝브락은 남부 우즈벱의 뚝브라(dombra)나 아프간 투르크스탄의 담부라(dambura)와 같은 계통의 악기이다.) 각 악기는 평원 지역에서는 찾을 수 없는 산악 지역 고유의 특징적인 레퍼토리를 갖는다. 이런 양식은 일반적으로 팔락(falak, '천계(天界)' '운명'이라는 의미) 또는 가리비(gharibi, '가난한 자의 음악'이라는 의미)라고 하는데, 이는 좁은 음역, 빈번하게 쓰이는 반음계, 매우 긴 종저구, 자유리듬, 7박자로 된 4구의 빈번한 사용, 뚝브락과 기작 사이의 병행4도 선율 등의 특징을 갖는다. 이런 특징은 아프간 바다크산 음악에서도 나타난다.

평원과 협곡의 타지인이 쓰는 악기는 우즈벱인의 악기와 기본적으로 같다. 이들의 악기로는 탄부르(tanbur, 두트, <도판 1>), 두타르(duitar, 2현 두트), 키슈가르의 로밥(robab), 차르타르(chartar), 판짜르(panjar), 샤시타르(shashitar, 목이 긴 루트), 타르(tar, 백인의 악기로 최근에 많이 쓰임), 창(chang, 채로 치는 덜찌머의 한 종류), 기작(ghidjak, <도판 2>), 사르(saro, 찰현악기), 스루나이(srunai, 겹서 판악기, <도판 3>), 카르나이(kamai, 판악기), 주프트나이(jufnai, 흡서 쌍피리, 우즈벱의 코쉬나이(qoshnai)와 같은 악기), 나카라(naghara, 북), 도이라(doira, 북, <도판 4>), 카이라크(qairaq, 돌로 된 캐스터네츠), 사파일(safail, 방울) 등이다. 이들 악기들 중에서 우즈벱인이 안 쓰는 것은 아프간의 로밥, 두란³⁾의 로밥, 그리고 찰현악기인 판짜르이다.

2) 키슈가르(Kashgar)는 현재는 카스(喀什)라고 부르는 중국 신장웨이우얼 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에 있는 오아시스 도시이다. 키슈가르는 옛날부터 실크로드의 교역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퉁산(天山) 산맥과 쿤룬(崑崙) 산맥이 만나고 파미르 삼백 기슭에 자리잡고 있어 서쪽으로 우즈벱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의 경계지역에 있는 헤르가나 계곡과 남쪽으로 인도의 랑부키슈미르, 북쪽으로 우무루치(烏魯木齊)와 이리(伊梨) 강 유역으로 이어지는 대상들의 교역로를 관장했다.

3) 두란(Duran, 都蘭)은 중국 칭하이성(青海省) 하이시멍구주장쑤(海西蒙古族藏族自治州)에 있는 현(縣)이다. 두란은 몽골어로 파꽃하다는 뜻이다. 한족(漢族)·장족(藏族)·몽골족·회족(回族) 등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면서 독특한 문화를 일구었다.



〈도판 1〉 부하라-사이르칸드 지역의 토티르 연주자

〈도판 2〉 타지의 가작 연주자

〈도판 3〉 스투나이

〈도판 4〉 도이타

이렇게 산악 타지인과 평원 타지인의 두 가지의 큰 틀에서 지역적으로 고유한 스타일과 음악 갈래를 갖는 특징이 나타나기도 한다. 보잔드, 우라티유메, 이스파라 등지의 북부 지방에서는 나크시(naqsh, '유형' 또는 '장식'의 의미)라는 성악 갈래가 널리 퍼져 있는데, 이는 타지키스탄의 다른 지역에도 존재한다. 나크시는 대개 나크시-아칼론(naqsh-i-akalon), 나크시-이-미요나(naqsh-i-miyona), 나크시-아후르드(naqsh-i-khurd)의 연곡으로 구성되고, 남성 가창자가 결혼식 중에 타지기와 우즈베크어로 노래한다. 최근에 나크시는 봄의 계절 의례인 툴립 축제에서도 연행된다.

쿨랴얌, 부르간-티유메, 가남, 가짜브 협곡 등지의 타지키스탄 남부에서는 구루글리 서사곡인 다스탄(dastan)이 성행한다. 다스탄은 2현 첼렌악기인 두타르(dutar) 또는 둠브락(dumbak)으로 반주하며 구전 서사전통에서 가장 인기있고 중요한 음악이다. 이 서사음악을 연행하는 구루글리혼(guruglikhon)이라는 전문음악가의 레피도리는 30여 곡목을 넘는다. 구루글리혼은 쿨야비안(Kulyabian)과 카라테기니안(Karateginian) 두 유파로 나뉜다.

야그노브족은 인구는 적지만 고대 소그디아인의⁴⁾ 후예이다. 그들은 제라브샨 고

4) 소그디아는 소그디아나라고도 하는 이란인의 고대 문명이다. 현재의 사마르칸드를 중심으로 아무다라 강과 시르 다라 강 주변에 위치했기 때문에 현재의 우즈베크스탄과 타지키스탄 지역을 아우르는

원과 야그노브 강변에 거주하고 고유한 음악 전통을 전승하고 있다. 그들의 성악곡과 기악곡의 가락은 그다지 화려하지는 않다. 그들이 전승하는 중요한 성악 갈래로는 바이트(bait)가 있는데, 이는 야그노브(Yagnob)어⁵⁾와 타직어로 노래한다. 바이트는 무함마스(muhammas), 하보지(khavozi), 아스카리(askari), 바이트이 오슈기(baithoi oshuqi) 등 여러 음악 갈래의 모태가 된다. 결혼 노래는 남성과 여성 가창자가 부르는 것이 구분된다. 여성은 바라칼로(barakallo, 정혼을 위한 노래)와 무함마스를 춤을 추면서 노래한다. 야그노브족은 보통 볼복인 도이라(doina), 2현 찬현악기인 두타르(dutar), 목이 짧은 찬현악기인 둠브락(dumbrek)을 연주한다. 야그노브족의 음악은 북부 타지키스탄 음악의 양식적 단일성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2) 샤시마콤(shashmaqom)

우즈벡 학자인 이스하크 라자보프(Is'haq Rajabov, 1927~1982)는 샤시마콤이 이미 18세기에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샤시마콤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부하라 왕국의 나쉬룰라 칸(Nashrullah Khan, 1826~1860) 재위 시기에 편찬된 샤시마콤 시인들의 선집인 바이즈(bayaz)에서 찾을 수 있다. 샤시마콤 조곡은 12마قام(duvazhiad maqam) 체계에 근거해서 발달했는데, 16~17세기 부하라 왕국에 특징 유풀파 존재했다. 이 유풀파의 창시자인 마우라나 나잠 아드담 카우카비 부하리(Mawlana Najm ad-Din Kawkabi Bukhari, ?-1531)는 세이바니드 왕조 시기의 시인이자 궁중음악가로, 페르시아-타직어로 쓴 음악학 저술에 새로운 마قام 이론을 창시했다. 그의 이론은 러시아와 이란의 음악과학에 영향을 미쳤다. 그의 후계자인 다르위쉬 알리 창기(Darwish Ali Changi)는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부하라에서 활동한 궁중음악가이자 학자이자 시인이었다. 그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페르시아-타직어로 된 음악이론서를 저술했다.

19세기 말에서 1920년대까지 샤시마콤의 중심지는 부하라 궁중이었는데, 시기적

지역에 존재했던 고대 문명이다.

5) 야그노브(Yagnob)어는 사마르칸드 동쪽 야그노브 계곡에 거주하는 야그노브족의 방언이다.

으로는 무자파르 칸(Muzaffar Khan, 1860-1885), 아하드 칸(Akhad Khan, 1885-1910), 알림 칸(Alim Khan, 1910-1920) 제위 기간이었다. 이 시기에 음악학과 샤시마콤에 관한 소개서와 대중서뿐만 아니라 비야즈도 많이 발간되었는데, 이들은 무하라이어로 쓰여졌다. 샤시마콤과 그 변주곡은 도시사회의 지식인층 사이에서도 널리 성행했다. 19세기 말부터 1920년대까지 샤시마콤의 중요한 연주자로는 오타 자홀(Ota Jahol, 1845-1928), 오타 기요스(Ota Ghiyos, 1858-1927), 레비 보보칸(Levi Bobokhan, 1873-1926), 도믈라 할림(Domla Khalim, 1878-1940), 호지 압둘라지즈 라술로프(Hoji Abdulaziz Rasulov, 1852-1936) 등이다. 여섯 마قام은 보통 부즈룩(buzruk), 라스트(rast), 나바(nava), 두가(dugah), 세가(segah), 이라크(iraq)로 구성된다. 부즈룩은 고대 페르시아어인 보조르그(bozorg, '크다'라는 의미)의 변형어이고 나머지 다섯 명칭은 페르시아 전통 아바즈(avaz, 조성)의 명칭이기도 하다. 여섯 마قام은 세부적으로는 변주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피구조를 가졌고 우즈베크파 타지 각편이 존재한다. 각각의 마قام은 기악부로 시작해서 매우 긴 기악반주의 성악부로 구성된다. 전반부는 무시킬로트(mushkilot, '어려운'이라는 의미)라고 하며 후반부는 나스르(nasr, '노랫말'이라는 의미)라고 하는데, 전반부는 짧다. 무쉬킬로트는 타스니프(tasnif), 타르제(tarje), 가르둔(gardun), 무함마스(mukhammas), 사킬(saqil)의 다섯 악장으로 구성된다. 가르둔을 제외한 모든 악장은 재현부인 바즈구이(hazgui)와 변주인 하나(khana, '출발점'이라는 의미)로 구성된 론도와 같은 형식으로 되었다. 가르둔은 카르나로만 이루어진다. <보례 1>은 무قام 부즈룩의 타스니프 악장의 첫머리에 출현하는 두 카나와 바즈구이의 사례이다.

현대의 마قام에서 나스르(노래 부분) 연행은 소수의 성악가가 제창으로 노래하고 기악반주가 따르는데 기악부는 미세한 장식음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제주 선율로 연주한다. 나스르의 내부 구조는 복잡하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슈바(shuba, '가지'라는 의미)라고 한다. 슈바의 첫 부분은 독특한 선율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주로 세 부분)은 고정된 윤락을 따른다. 슈바의 첫 부분은 네 곡의 긴 노래로 구성되는데, 이는 사라흐바르(sarakhbar), 탈킨(talqin), 나스르(nasr), 우파르(ufar)이다. 마지막 노래인 우파르는 춤 리듬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중요한 노래들 사이에 6곡의 가볍고 짧은 노래인 타로나(tarona)가 삽입된다. 타로나는 페르시아 고전 시가의

(보통 1) 마캄 부즈룩의 다스나프 악장

복잡한 박자구조로 된 것이 아니고 민속 시가와 리듬으로 된 것이다. 이어지는 두 번째 슈바는 다섯 곡의 노래로 구성되는데, 이는 사우트(sawt), 탈킨차(talqincha), 카쉬카르차(qashqarcha), 사키나마(saqinama), 우파르(ufar)이다. 두 번째 슈바에는 타로나가 없다. 주제부가 소개되면 각 곡은 동일한 선율이지만 노래되는 시의 운율에 맞게 다른 리듬구조로 이어진다. 기본적인 구조는 사우트는 15박(4+4+4+3), 탈킨차는 14박(7+7), 사키나마는 10박(5+5), 우파르는 13박(5+5+3)이다. 슈바 곡 외에도 각각의 마캄에는 독립적인 부분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런 경우에는 대개 그 레퍼토리에 현저한 선율을 만든 유명한 연주자의 이름이 붙여지게 된다.

복잡한 음악요소가 주요한 노래의 구조적 뼈대를 채운다. 마캄 노래는 네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각각은 연행의 다른 측면과 관련이 있다. 두 가지는 리듬적 요소이다. 하나는 운율이고 (슈바의 후반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매 악장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다른 하나는 우술(usul)이라는 고형(鼓型)인데 이는 노래의 시작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뱀버린으로 연주된다. 이들 두 리듬적 요소는 서로 관련된 것이다. 다른 두 요소는 선율적 요소와 구조적 요소이다. 선율적 요소는 각 악장의 불균등한 흥예형(arch) 선율형으로 향하려는 경향인데, 이는 노래 시작부분보다는 종결부분에 이르면서 절정(aui)에 이른다. 이런 기본적인 선율형은 새로운 음조를 연주하는 기악 간주부분에 의해 나타나는 연속적인 상행음역 또는 하행음역으로 인

해 간단한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또다른 중요한 선율적 요소는 각각의 마قام이나 각각의 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대한 조성적 관계이다. 나무드(namud)라는 확대된 선율패턴이 조성 변경에 의해 규정되고 주어진 마قام의 선율 구조에 투영된다. 나무드는 종종 아우이(aui)라는 절정부에 나타나기도 한다. <보례 2>는 (우즈베크 버전의) 나무드-이 나바(namud-i nava)인데, 이는 마قام-이 나바(maqam-i nava)의 사라흐바르(sarakhbar) 악장 도입부에서 나타나고, 이외에도 마قام-이 라스트(maqam-i rasi)의 슈바(shuba)의 나우루즈-이 사바(auruz-i saha) 그들, 마قام-이 세가(maqam-i segah)의 사라흐바르(sarakhbar), 달카-이 나스르(dalqa-i nasr), 우파르(ufar), 그리고 마قام-이 나바(maqam-i nava)의 다양한 슈바(shuba)에서도 나타난다. <보례 2>와 같은 나무드는 다양한 박절 리듬 맥락(다양한 고향을 포함하는)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새로운 특징을 갖는다.

<보례 2> (우즈베크 버전) 나무드-이 나바 (Keremalov and Rajabi, 1966)



중앙아시아의 유일한 기보체계는 사시마콤(shashimaqom)을 기보하기 위해 비롯

되었다. 이것은 '호레즘(Khorezmian)' 기보법인데, 이는 마캄 앙상블의 주선율을 연주하는 악기인 탄부르(tanbur)를 위한 태블러처(tablature)⁶⁾로서 히바(Khiva)의 칸인 무하마드 라힘-칸 2세(Muhamad Rahim-Khan, 1865-1910)를 위해 나이즈 미르자바쉬 카밀(Naiz Mirzabashi Kamil, 1899년)이 만든 것이다. 샤시마롬 전 곡이 이 기보 체계로 기보되었는데, 이는 프레트를 기보하기 위해 가로로 된 격자모양의 선과 선을 진행을 기보하기 위해 세로로 연결된 선, 그리고 각각의 음(8분음표)을 연주하는 오른손 주법을 표시하는 점으로 구성된 것이다. 내재된 리듬은 우술 고품으로 표기된다. [타직의] 샤시마롬과 이란, 아르제바이잔, 터키, 아랍 국가 등 주변국들의 고전음악과의 관계가 일정 정도 설명되었고, 카슈미르⁷⁾ 마콰이나 북인도 라가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규명되었다.

소비에트 기간에 샤시마롬 연주는 대규모 콘서트 형태로 확대되었다. 샤시마롬은 라디오, 텔레비전, 교향악단, 교육기관 등의 국가기관에 의해 연주되었다. 이들 기관은 타지키스탄의 수도인 두산베에 집중되었다. [타지키스탄 북부 도시인] 후잔드에는 마캄 연주의 독특한 지역전통이 전승되고 있다(지도 1) 참조.

2. 서양음악의 영향

1) 오페라, 발레, 오케스트라음악, 실내음악

러시아의 10월혁명(1917) 이후 소비에트 제국이 건설되었고, 타직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이 소련의 국경 내에 건설되면서 유럽 클래식 음악이 소개되었다.

1920년대에 작곡을 위한 전문교육은 당시 우즈베키스탄(타직 사회공화국은 1924~

6) 태블러처(tablature)는 기보법의 일종으로서 악기의 연주법 등을 다양한 기호로 그린 것이다. 우리나라의 합자보(合字譜)가 태블러처의 일종이다.

7) 카슈미르(또는 캐시미르)는 히말라야 산맥 서쪽 끝부분의 남쪽에 있는 계곡을 말한다. 현재는 인도, 파키스탄, 중국의 영토로 분할된 분쟁지역이다. 현재 잠무 카슈미르는 인도령, 아자드 카슈미르는 파키스탄령에 속하며, 아크사이친은 중국령으로 나뉘어졌다.

1929년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일부였다)의 수도였던 사마르칸드와 부하라에 설립된 대학에서 이루어졌다. 이들 대학에서 러시아 음악가인 리스트파도프(A. Listopadov)와 미로노프(N. Mironov)는 초기의 교사였다.⁸⁾ 1929년에 타지키스탄의 수도인 두산베에 드라마 단체와 음악 앙상블로 조직된 타지 국영 극음악극장이 설립되면서 오페라, 발레, 오케스트라음악, 실내음악이 소개되었다. 타지 음악가들이 타지 작곡가동맹(1940)의 회원이 되었고 두산베에는 많은 음악학교와 음악기관이 설립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민족악기 오케스트라, 로밥(robab) 명인 앙상블, 민속무용·민요 앙상블, 파미르 민족음악 앙상블, 그리고 어린이 앙상블 등으로 구성된 음악·발레학교(1934-1937)와 타지 발하모니아(1937-1940)를 들 수 있다.

러시아 작곡가, 교사, 반레 대가들은 새로운 스타일의 타지 음악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타지의 민족 축제인 사이르-이 굴-이 불라(들림 축제)를 활용하여 작곡가인 발라사니안(S. Balasarian)과 우바흐(S. Ubakhi)는 극작가인 사이드무라도프(S. Saidmuradov)와 함께 음악극인 <롤라(Lola)>를 창작했다. 발라사니안은 시인인 데호티(A. Dekhoy)와 투르순즈아데(M. Tursunzade)와 더불어 첫 번째 타지 오페라인 <보세의 혁명(Vostaine Vose)>을 선보였는데, 이 작품은 타지의 전통예술과 새로운 음악형식을 결합한 것이었다. 많은 타지 음악가들이 러시아에서 공부했는데, 뮈를간도프(A. Mullogandov), 타이로프(H. Tairov), 투라예프(B. Turayev) 등을 들 수 있다. 1941년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타지 예술의 10일간의 축제인 데카다(Dekada)에서는 새로운 오페라인 <대장장이 코바(Kuznetz Kova, 루후티(Al Lukhury) 대본, 발라사니안·보보칼로노프(Sh. Bobokalonov) 음악), 첫 번째 타지 발레인 <두 송이 장미(Du guls, 렌스키(A. Lensky) 음악, 라비예프(M. RabiyeV) 대본) 등의 작품이 공연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와중에 음악가들은 전쟁과 관련된 정치적인 작품을 창작했는데, 발라사니안·샤히디(Z. Shahidi) 작곡의 음악코미디인 <로지아(Rozia, 1942)>, 발라사니안 작곡의 음악극 <분노의 노래(Pesnya gneva)>, 그리고 보보칼로노프, 살리에프(F. Saliyev), 샤히디(Shahidii) 등이 작곡한 많은 대중

8) 우즈베키스탄 음악에 관해서는 Theodore Levin, Razia Sultanova, 이용식 옮김, 『우즈베키스탄의 음악문화』, 『음악과 문화』 제21호(대구: 세계음악학회, 2009), 187-213쪽 참조.

가요 등을 들 수 있다.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 SO가 두산베로 피난을 왔는데, 이로 인해 '새로운' 타지 음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1945년에 두산베에 음악대학이 설립되었다. 1940년에는 파미르 민족음악 앙상블이 살리에프, 우자코프(P. Uzakov), 프로클렌코(A. Proclenko) 등에 의해 조직되었고, 이 곳 출신의 반디쇼예바(S. Randishoyeva), 굴로말리에프(G. Gulomaliyev), 후도야르베코프(G. Khudoyarbekov) 등은 유명한 성악가가 되었다.

반다사니아의 발레인 <라일리와 마스눈(Laily and Majnun, 1947)>은 소련연방의 국가적인 상을 받았고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몇몇 타지 작곡가들과 음악가들은 고유한 스타일을 개발했는데, 샤호보프(F. Shakhobov), 샤이시(Shaishi), 사히보프(Sh. Sahibov) 등의 노래와 가곡을 들 수 있다. 또다른 음악가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는데, 사브자노프(Y. Sabzanov), 아이후노프(D. Aakhunov), 사이피디노프(Sh. Sayfiddinov) 등의 첫 번째 타지 현악4중주, 렌스키(A. Lensky), 사브자노프 등의 성악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소나타 등을 들 수 있다.

1940년대 후반에 전통 음악형식인 사시마롬이 샤호보프, 사히보프, 파이불라예프(B. Faizullayev), 로달스키(U. Rodalsky) 등에 의해 기보되었다. 1960년대에는 저명한 학자인 베르텔스(B. Bertels)와 벨야예프(V.M. Belyayev)가 서문을 쓴 5권의 악보가 모스크바에서 출간되었다. 현재는 미국에 거주하는 브라노 이쇼코바(Brano Ishokova)는 사시마롬 분야의 최고의 가수로 꼽힌다. 곤로말예(G. Gulomaliye), 알라예프(A. Alayev), 쇼울로프(N. Shoulov) 등은 가장 뛰어난 기악 연주자로 꼽힌다.

1960년대까지 타지키스탄에는 유명한 전문음악단체가 없었다. 1962년에 첫 번째 성악기악 앙상블이 샤리포바(L. Shanipova)를 감독으로 결성되었다. 1964년에는 유명한 음악 앙상블인 굴산(Gulshan)이 샤리포바를 감독, 무라빈(M. Muravin)을 작곡가로 결성되었다(1966년에 감독이 오리포프(O. Orifov)로 바뀌었다). 현대악기와 고대악기의 명인이 나자로프(D. Nazarov)가 미르조쇼예프(M. Mirzoshoyev), 자크비에코프(I. Zakbiyev), 굴롬하이다로프(A. Gulomkhaidarov), 일리아예프(Y. Iliyayev) 등과 결성한 음악단체인 달레(Dalre)가 1979년 이후 인기를 얻었고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타지 대중가요가 압둘라예프(H. Abtullayev), 오디나예프(F. Odinayev), 두스트무하메도프(D. Dustmuhamedov), 야흐야예프(K. Yahyayev), 쾨로디(Sh.

Pulodi), 바호르(F. Bakhor), 야드고로프(A. Yadgorov), 줄피카로프(Z. Zulfikarov), 미르샤카르(Z. Mirshakar), 나자로프(D. Nazarov) 등에 의해 쓰여졌다. 타지 대중가요계의 유명한 가수로는 나비예바(M. Nabiyeva, 1947~79), 함라홀로바(M. Hamrahulova, 현재는 미국에 거주), 샬로예르(R. Shaloyer), 지야예프(U. Ziyayev), 네그마트프(B. Negmatov), 쉬리노바(H. Shirinova), 나자로프 등이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문화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새로운 형식의 음악이 바호르(F. Bakhor), 샤히디(T. Shahidi), 미르샤카르(Z. Mirshakar), 마메도프(U. Mamedov), 알렉산드로프(A. Aleksandrov), 풀로디(Sh. Pulodi), 피고바트(B. Pigovat) 등에 의해 일어났다. 이런 새로운 운동은 동양의 예술전통을 차용한 작곡가들인 라티프자데(A. Latifzade), 풀라토바(L. Pulatova), 니야지(H. Niyazi), 투라비(P. Turabi), 투르스노프(P. Turunov), 투쉬노크(K. Tushinok), 하사바(M. Khasava), 히크마트프(K. Khikmatov), 사토르프(T. Sattorov), 유수포프(B. Yusupov) 등과 오르가니스트인 아리포프(Y. Arifov)와 발라마트조다(D. Valamat-Zoda), 그리고 피아니스트인 핀켈베르크(A. Finkelberg), 하키모바(D. Khakimova), 이노야토바(G. Inoyatova), 오르로프(V. Orlov), 오비도바(N. Obidova) 등에 의해 주도되어 1980년대 후반에 절정을 이루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에 있었던 타지 역사, 문화, 민속전통, 종교에 대한 부흥운동은 타지키스탄 음악문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모든 층위의 민족전통을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고 민족악기를 사용한 오케스트라 작품이 창작되었다. 이런 예로 오디나예프(V. Odinayev)의 〈팔라크(Falaq)〉, 샤히디(T. Shahidi)의 〈오마르 하얌의 루비야트(Rubayat of Omar Khayam)〉, 테르-오시포프(U. Ter-Osipov)의 발레 〈산의 전설(Legend of Mountains)〉, 함다모프(A. Khamdamov), 사이피디노프(Sh. Sayfiddinov), 두스트무하메도프(Dustmukamedov) 등이 쓴 페르시아-타지 고전문학에 붙인 노래 등을 들 수 있다.

2) 최근의 발전과 음악기관

1991년 독립 이후 많은 유망한 타지 음악가, 가수, 작곡가가 불안정한 정치 상황,

퇴보하는 문화적 전방, 직업적 고립, 삶의 궁핍화, 실업대란 등의 이유로 이민을 가기 시작했다. 음악가들은 아마도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국면에 대응하기가 가장 어려웠을 것이다. 이전에는 거의 모든 음악가, 가수, 작곡가는 국가에 의해 고용되었다. 현대 타지키스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기에 새로운 관객을 흡수하기에 어려움을 겪는다.

1995년 12월 문화정보부는 유엔 발전프로그램의 후원으로 평화, 예술, 문화를 위한 10인 간의 축제인 데카다(Dekada)를 두산베와 하트론 지방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에 출연한 유명한 타지키 음악가로는 압둘라예프(I. Abdullayev), 카발로프(A. Kamalov), 솔리예프(F. Soliyev), 니야즈마마도프(N. Niyazmamadov), 아이라페타인(E. Ayrapetian) 등의 작곡가, 보도돌로프(A. Bododulov), 카비로바(I. Kabirova), 마블라노바(H. Mavlanova), 사브잘리에바(O. Sabzaliyeva), 미라자보프(Miradjabov) 등의 오페라 가수, 보키예바(M. Bokiyeva), 파질로바(T. Fazilova), 무로도프(I. Murodov), 갈리보바(R. Galibova), 바흐두로프(M. Bakhodurov), 나자르도노바(M. Nazardodova), 리조(H. Rizo) 등의 민요 가수들 들 수 있다.

1990년대부터 파란(Parani)과 같은 비공식적인 인기 그룹이 타지키 예술계에 등장했다. 최근의 공연장과 음악기관으로는 두산베에 있는 아이니(A. Aini) 기념 오페라 발레 극장(1940년 설립), 후산드, 호부그, 쿨야브, 카니바드, 난 등지에 설립된 국립 음악극극장, 타지키 작곡가동맹(1936년 설립), 두산베에 있는 타지키 벨하모니아(1938년), 로밥 명인 앙상블(1940년), 심포니 오케스트라(1965-93), 가무 앙상블 세 단계, 현악4중주단(1978-93), 민족악기를 위한 국영라디오 오케스트라, 샤시마츄 명인 앙상블(1964-91), 굴산 대중음악 앙상블(1964-91), 어린이 합창단(1982-91), 문화부의 예술극(1940-91), 타지키 과학원의 역사연구소 산하의 문화예술극(1958년 설립), 투르순자데(M. Tursun-Zade) 기념 예술관(1973년), 음악대학, 음악학교, 샤흐디(Z. Shahidi) 기념 음악문화 박물관, 민족악기를 위한 구르민즈 박물관 등이 있다.

■ 참고문헌

- N.N. Mironov, *Musika tadzhikov* (타지의 음악), Stalinbad, 1932.
- F. Karomatov and Yu. Rajabi, *Shashmaqam*, Tashkent, 1965.
- Z. Tajikova, "Svadeniye oesri tadzhikov (타지의 칠촌노래)", *Istoriya i sovremennost*, ed. T.S. Vizgo, Moscow, 1972.
- Z. Tajikova, "Pensi pokhoronimogo obnyada tadzhikov (타지의 칠레노)", *Problemi muzikal'nogo folkloro narodov SSSR*, ed. I. Zemtsovsky, Moscow, 1973.
- N. Nurdzhanova, Traditsii sozanda v muzikal' no-tantsval'noy kul'ture tadzhikov na rubezhe XIX-XX vekov (19세기~20세기 타지 음악·무용 문화에서의 소진다 전통), *Muzika narodov Azi i Afriki*, no.3, ed. V.S. Vinogradov, Moscow, 1980.
- Z. Tajikova, "O muzikal'nom istukshie bukharskikh zhenshchin sozanda (부하리의 여성 음악가, 소진다)", *Traditsii muzikal'nikh narodov Blizhnego, Srednego, Vostoka i sovremennost*, Samarkand 1983.
- G. Yusupova, "O Ladovum stroenii instrumental'noy muziki Gomogo Badakhshana (바다흐산 산맥 기악음악의 조성구조)", *Famil'ovedeniye*, no.2, ed. M.S. Asimov, Dushanbe, 1985.
- M. Abdulkarimov, ed. *Tambur*, Dushanbe, 1986.
- A. Rajabov, "Khojent i muzikal'naya kul'tura tadzhikov (호진드와 타지의 음악문화)", *Issledovaniya po istorii i kul'ture Leninabada: sbornik stat'ey*, ed. N.N. Nigmatov, Dushanbe, 1986.
- I.S. Braginsky and H. Nazarov, eds. *Gurug'i tadzhikskiy narodnyy epos* (구루글리: 타지 민속서사시), Moscow, 1987.
- N. Nurdzhanov, "Pevtsi-mavriqikhoni (소리꾼 마브리키칸)", *Izvestiya Akademii nauk Tadzhikskoy SSR* 4/13 (1989).
- Z. Tajikova, K voprosu o muzikal'nikh traditsiyakh bukharskikh mavriqikonov (부하리의 마브리키칸 음악전통), *Borbad, apogii i traditsii kul'tur*, ed. N.N. Nigmatov, Dushanbe, 1989.
- M. Abdulkarimov, "Spetsificheskiye parametri bukharskogo tambura (부하리 탐부르의 특별한 구조)", *Borbad i khudozhestvenniye traditsii narodov tsentral'noy porednoy Azi*, Dushanbe, 1980.
- F. Azizova, "O ritmicheskoy funktsii v melome i raga (리듬과 라가의 리듬 기능)", *ibid.*
- A. Abdurashidov, *Tambur i yego funktsiya v tucheni ladovoy sistemi shashmaqama* (샤쉬마름 조성체계에서의 탐부르와 그 기능), *dis.*, Institut istorii iskusstvo, Tashkent, 1991.
- Z.M. Tskokova and A.L. Khromov, "Pesennoye tvorчество yagnobtesov (아그노프족의 노래)", *Izvestiya Akademii nauk Tadzhikskoy SSR* xii/2 (1991).
- Ya. Hamov, "Hotizi buzurg (위대한 가수)", Jerusalem, 1993.
- R. Nektalov, *Gama'i Mufakandov: ocherk zhizni tvorchesha* (가브리엘 무라칸도프: 인생과 작품에 대한 연구), Samarkand, 1993.
- T.E. Solomnova, ed., *Istoriya muziki sredney Azi i Kazachstan*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의 음악사), Moscow, 1995.

T. Levin. *The Hundred Thousands Fools of God: Musical Travel in Central Asia (and Queens, New York)*,
Bloomington, IN, 1996.

음반

Staryshnye mestora iskusstv (예술의 오래된 명인들, 1906년 녹음), Melodiya M30-42091-93 (n.d.)

Tadzhikskoye melodi (타지 멜로디), Melodiya D00035439-40 (n.d.)

Surudnoi hozir (명인들의 노래), Melodiya C30-19001-02 (1983).

Antologiya: traditsionnaya muzika tadzhikskogo naroda (선집: 타지의 전통음악), Melodiya M30-45273-75
(1985).

Kontseri v Registan (레지스탄의 연주회), Melodiya C30-23547-48 000 (1989).

Ustadonl san'ati Tojikiston (타지 예술의 명인들), Melodiya M30-48969-60 003 (1989).

Boris Nernat'yev mazaroyal (보리스 나마티예프의 노래), Melodiya C30-30255-56 006 (1990).

Bukhara: Musical Crossroads of Asia, Folkways SF40050 (1991).

Asie centrale: traditions classiques, Ocora C560035/36 (1993).

Central Asia: the Masters of the Dutar, VDE GALLO CD735 (1993).